

배포 2025. 9. 25.(목)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5. 9. 25.(목) 12:00
(지 면) 2025. 9. 26.(금) 초간

교육부, 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와 현장 안착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 및 과목 선택을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 출결 처리 및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등 현장 지원 방안 즉시 시행
-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6년 교원 정원 추가 확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는 9월 25일(목),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보장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생별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되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 "예방지도에 참여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궁금한 점도 편하게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금산여고 학생 발언)

그렇지만 올해 본격 시행된 이후 교원·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러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에 구성한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와 논의하고,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선 대책은 ▲학생 지원 강화, ▲현장 수용성 제고,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 2명, 학부모 2명, 교원 3단체 각 1명, 교육청 추천 교사 11명, 학계 3명 등 21명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25.3.~) 학교 현장 방문(65개교), 시도교육청 간담회(9회), 교원단체 간담회(11회), 교사 모니터링단 협의회(5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실시

[학생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25.12월)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종합적으로 예방한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법」('26.3월 시행)과 연계하여 경제·심리적 문제 등 학습 결손의 복합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 강화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또한, 고교에서는 학생·학부모가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450명→600명)과 시도지원단을 증원하여 대면·비대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직 교원으로 구성, 고교생 대상으로 개별적인 진로 및 과목 선택 관련 온라인 상담 실시

아울러,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학점제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학점 이수 지원 및 수행평가 부담 완화

각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과목(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개발) 과목인 '기본수학', '기본영어')을 개설해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방안’도 정책연구를 거쳐 2026년 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학생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의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철저히 점검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살리되 학생의 평가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수용성 제고]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 유연화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2/3 이상의 출석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학업성취율에 도달하도록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한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화한다. 보충지도 시수를 감축(1학점당 5시수 → 3시수 이상)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학교가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방안(안) >

구분		주요 내용	
		현행	개선
예방·보충지도 시수 감축		▶1학점당 5시수	▶1학점당 3시수 이상
예방지도 인정 범위 확대	과목별 보충지도 시수의	▶50%까지 인정 권장	▶보충지도를 포함하여 운영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과목,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 운영
정서지원 프로그램 인정 범위 확대		▶25%까지 인정 권장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보충지도’를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

□ 출결 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부담 경감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분량도 조정한다.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부여해 출결과 관련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인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조정한다.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학점제 시행 전에 연간 500자에서 학점제 시행 후 연간 1,000자로 분량 증가)

또한, 추가적인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입학사정관·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 다과목 수업 교사 및 행정 업무 경감 지원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설(고시)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를 운영한다.

* 「금융과 경제생활」, 「인공지능 기초」 등

그리고 과목 수강 신청, 시간표 작성 등 고교학점제 학사 운영 편성을 위해 AI 기능을 탑재하여 수강 신청 프로그램의 기능을 고도화한다.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은 **2026년 정원으로 긴급 확보**한다.

또한,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대학과 협력하여 읍면·도서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소규모학교 등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둘째,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 풀을 구성·공유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타 시도의 학생에게도 개방한다. 셋째,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우선 유도하여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의 개설을 확대한다.

* 일선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 관련 예산 지원

** 대학이 전문성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교육 내용 중 고교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새롭게 구성한 과목 → 과목 이수 시 고교 학점 및 해당 대학 학점 인정

[추가 논의 과제]

이번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의 완화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국교위의 소관 사무)

교육부는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도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

2025학년도 2학기는 1학기와 변동 없이 운영되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시급한 보완 대책의 검토와 병행하여, 보다 근본적인 고교교육 개선을 위한 논의도 착수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 및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 교육과정지원팀 (과목 선택 컨설팅, 온라인학교 등 현장 지원책 전반)	책임자	팀 장	정상명 (044-203-6715)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도균 (044-203-6719)
			교육연구사	신진걸 (044-203-6729)
	기초학력진로교육과 (학점 이수 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진로교육 강화)	책임자	과 장	정윤경 (044-203-6730)
			교육연구관	한세준 (044-203-6747)
		담당자	교육연구사	김지훈 (044-203-6740)
			교육연구사	송현주 (044-203-6725)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출결, 학생부, 수행평가)	책임자	과 장	김한승 (044-203-6699)
			교육연구관	이승택 (044-203-6743)
		담당자	교육연구사	최가영 (044-203-6744)
			교육연구사	황슬기 (044-203-6746)
	교원학부지원관 교원정책과 (교원 정원)	책임자	과 장	조훈희 (044-203-6480)
		담당자	사무관	김경주 (044-203-6481)
			주무관	윤재일 (044-203-6486)